

노약자 이동 힘든 광주 '교통복지 낙제점'

교통약자 이동 실태 조사...7개 특·광역시 중 6위

보행자 사고율 높아...전남은 저상버스 보급률 등 미흡

광주시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들이 거주하기 힘든 교통복지 '낙제 도시'로 나타났다.

교통수단·여객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등 교통복지 분야 9개 지표에 대해 종합평가해 수치화한 결과(교통복지수준), 교통 약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7대 특·광역시 중에선 서울시, 10개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로 조사됐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016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는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종합점수 68.4점을 기록, 7개 특·광역시 중 6위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평가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장애인 전용 이동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보면,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8.8점(5위),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 9.5점(4위),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6.2점(6위), 보행자 사고율 7.3점(6위), 저상버스 보급률 6.1점(5위),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전용 이동차량 등) 보급률 8.8점(1위),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5.5점(3위),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 5.2점(6위), 교통복지 행정 11.0점(2위)으로 나타났다.

기준 적합 설치율은 이동편의시설이 교통 약자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도를 말하며,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차량 보급률을 가리킨다.

71.2점을 기록한 전남은 10개 시도에서 6위를 기록, 중위권에 머물렀다.

■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순위	지역	점수
1	서울	80.0
2	부산	73.1
3	대전	72.1
4	인천	69.8
5	울산	68.8
6	광주	68.4
7	대구	65.6



전남은 저상버스 보급률(8위·5.4점), 특별교통수단 보급률(9위·4.1점), 고령자 및 어린이 사고율(9위·4.9점)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시설 이용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5.7%인 1323만명으로 2014년보다 약 18만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

별로는 고령자(65세 이상)가 678만명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51.2%)을 차지했고 이어 어린이(17.7%), 영유아동반자(17.1%), 장애인(10.7%), 임산부(3.3%) 순이었다.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일반인이 버스, 도보, 승용차 순이었으나 교통약자는 도보, 버스, 도시철도 순으로 조사됐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 등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전국 평균 72.5%로 집계됐다.

교통수단별 기준 적합 설치율은 항공기(98.7%)가 가장 높았고 1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이 대부분인 여객선(17.6%)이 가장 낮았다. 여객시설 중에서는 공공이 관리하는 도시철도·광역철도 역사(83.6%), 철도역사(81%), 공항터미널(80.9%)이 높은 설치율을 기록한 반면, 민간 부문인 여객자동차터미널(54.4%), 관리대상 수가 많은 버스정류장(39.4%)은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학 구조 개혁 중단하라"

전국교수협, 정부 비판 성명

전국 대학 교수들이 대학 구조개혁 등 현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동력을 잃은데다, 각계의 비판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 정부를 위해서라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정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김영철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제도장치가 고장난 기관자 같이 기존 그릇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대학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정부는 최근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 계획을 지난 1월 일찌감치 확정하고 각 사업의 평가요소로 대학을 옥죄는 악행을 서슴치 않고 있다"면서 "이는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 수립을 방해하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대학에 혼란만을 가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정책적 과오를 냉정히 평가하고 자숙하라"고 주장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동심이 그린 '물 사랑' 21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규모 국제 물산업 박람회인 '2017 워터코리아(WATER KOREA)'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박람회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사랑 체험관'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물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광주과학고 의·치대 진학시 추천서 제한

지역내재전형으로 45명을 선발한다. 다음달 4일 원서 접수를 시작, 1단계 학생기록물 평가, 2단계 종합적 문제해결력 평가, 3단계 영재성 다면평가를 거쳐 7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의·치·약학계열 진학 희망자의 경우 지원이 적합하지 않고 해당 계열에 진학할 경우 학교 교사의 진학지도, 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전형 요건에 기재했다.

교육부가 영재고나 과학고 재학생에 대

한 의대 진학 억제 방안을 학교측에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과학기술인재양성'이라는 학교 설립취지와는 달리 의대 진학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광주과학고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줬지만 아예 모집요건에 적시하는 등 입학 전형을 손질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과학고는 지난해 45명을 뽑는 지역 인재 전형 부문에 231명이 지원해 5.13대 1, 전국 단위 선발에서는 524명이 응시 원서를 내 11.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4 해질 18:46 달뜨기 02:26 달지기 12:55

봄나들이 가세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 지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2/15	보성	맑음	0/14
목포	2/12	순천	맑음	3/15
여수	4/14	영광	맑음	-1/12
나주	-1/14	진도	맑음	3/10
완도	3/15	전주	맑음	0/14
구례	-2/15	군산	맑음	0/12
강진	1/15	남원	맑음	-2/14
해남	맑음	홍산도	맑음	5/10
장성	맑음			-1/14

◇ 바다 날씨

시해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남부	북~북동	0.5~2.0	북~북동	0.5	북~북동
남해	북~북동	0.5~1.5	동~남동	0.5~1.0	동~남동
서부	북~북동	1.0~2.0	북동~동	1.0~1.5	북동~동
서부	북~북동	1.0~2.5	북동~동	1.0~1.5	북동~동

◇ 생활지수

- 관심: ☔
- 식중독: ☀
- 보통: ☀
- 자외선: ☀
- 낮음: ☀
- 피부질환: ☀

◇ 주간 날씨

23(목)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	☁	☁	☁	☁	☁	☁
3/13	4/14	6/13	5/14	4/15	4/16	3/16

"호남정맥 산림혜택 연간 1100억원"

국립산림과학원 심포지엄

도로·채석 등 71곳 신음

마이산에서 시작해 무등산을 지나 광양 백운산에 이르는 호남정맥이 주는 산림혜택이 연간 11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호남정맥을 포함한 백두대간 정맥(큰산줄기)이 국민에게 주는 산림혜택은 연간 2조원을 웃돌지만, 곳곳에 들어선 인공시설물로 백두대간이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열린 '백두대간의 가치와 한국 정맥의 이해'라는 심포지엄 자료에 따르면, 백두대간 '정맥'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산림혜택은 연간 2조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혜택은 산림의 온도조절 기능, 식물 자원 등 생태환경이 주는 가치, 정맥에 자리한 역사·문화자원이 주는 혜택을 종합해 수치화했다.

광주·전남에 걸친 호남정맥은 산림혜택이 1100억원으로 평가됐다. 호남정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한 사람이 연간 4만3362원의 산림환경 혜택을 받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북부지역을 가로지르는 '한북정맥'의 경우 연간 혜택이 1조5335억 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그러나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나온 13



개의 고유 산줄기인 '정맥' 곳곳이 도로와 공원묘지, 채광·채석 등으로 대규모 훼손이 발생한 곳만 926곳으로 나타났다. 총연장 2065km 가운데 전체 유형별 훼손 형태는 도로가 441곳, 공원묘지 40곳, 골프장 71곳, 채광·채석장 61곳, 휴게소·송전탑 등 기타 313곳이었다.

특히 연장이 446km에 달하는 호남정맥 훼손지의 경우 지난 2010년 조사가 이뤄졌는데, 도로 56곳, 공원묘지 1곳, 골프장 3곳, 채광·채석장 5곳, 기타 6곳 등 71곳으로 조사됐다. 기타 훼손지에는 무등산 한복판에 우뚝 솟은 방송 3사 송수신탑(방송탑), 통신탑이 포함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형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